

K리그1 전북, 대전과 안방서 무승부

전북, 5승 3무로 8경기 무패 행진
후반 42분 전진우 선제골 터졌지만
후반 47분 통한의 실점으로 비겨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대전 하나시티즌과 비기며 아쉬움을 삼켰다.

전북은 6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로써 2위 전북(승점 22·6승 4무 2패)과 1위 대전(승점 27·8승 3무 2패) 사이 격차는 승점 5가 유지됐다.

거스 포엣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은 이번 무승부로 8경기 무패 행진(5승 3무)을 달렸다.

하지만 안방에서 선수를 쫓는 대전과 비긴 만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 종료 직전 전진우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실점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은 이날 무승부로 4경기 무패 행진(3승 1무)을 이어갔다.

3연승은 끊겼지만 까다로운 전주 원정에서 패배를 모면한 것에 만족한다.

패색이 짙어졌던 상황 교체로 투입됐던 김인규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구했다.

전반전은 전북이 주도했다. 전반 19분 송민규가 패스를 쫓은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했다. 전진우가 헤더를 시도했으나 이창근 선방에 막혔다.

이창근이 대전을 다시 구했다. 전반 21분 김진규 침투 패스가 날카롭게 향했다. 강상윤이 김태현 컷백을 살려 슈팅했지만 이번에도 이창근이 저지했다.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돌입한 후반전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대전은 주민규, 김인규, 이준규, 김현우를, 전북은 티아고, 에르난데스, 이영재, 한국영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경기 종료 직전 전북이 마침내 균형을 깼다.

후반 42분 박진섭 침투 패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연결됐다. 티아고가 살린 볼을 전진우가 침착하게 밀어 넣어 골망을 갈랐다.

패색이 짙어졌던 대전이 곧바로 반격했다.

후반 47분 김준범이 따낸 공중볼로 대전 공격이 이어졌다. 김인규가 임종은이 건넨 패스를 잡은 뒤 균형을 잃지 않고 슈팅해 동점골을 넣었다.

경기 막판 불꽃이 튀었던 맞대결은 1-1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김태환과 대전하나시티즌의 최건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올해 도민·장애인체전 상징물 확정

9월 고창서 개최… 고창군, 총 12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9월 고창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의 홍보와 각종 대회 안내를 위한 상징물을 최종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제19회 도민체전 마스코트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민 대상의 공모를 통해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도민/장애인), 슬로건(도민/장애인) 6개 부문에 총 331점의 작품을 심사했다.

관련 전공 대학교수, 미술협회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당선작, 가작 총 12점의 작품을 상징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포스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과 고창읍성, 고창갯벌을 배경으로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선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고창군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엠블럼 당선작은 '역사, 문화, 생태자연이 풍부한 활력 넘치는 고창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힘찬 전진'이라는 컨셉으로 고창의 '고'와 힘차게 전진하는 전북인과 고창의 문화유산인 고인돌을 조화롭게 조합해 표현했다.

마스코트 당선작은 고창의 군조인 팔제비갈매기를 모티브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개회도시 고창군의 지리적 상징성을 담았으며 한쌍의 팔제비 갈매기가 함께 성화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했다.

슬로건은 양대체전(도민/장애인) 각각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 '행복도시 고창에서, 감동가득 희망체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하나되는 화합과 단결의 체육대회를 표방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정된 상징물들은 대회의 다양한 분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며 "올해 고창군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만큼 고창군민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민 자부심 됐다”… 컬링 세계 챔피언 전북팀 귀환

국내외 대회서 두각… 도, 선수단에 감사·축하 전달

김종훈 경제부지사 “선수들이 꿈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북 컬링팀에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 컬링팀은 지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5 세계 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해,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독일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냉정한 경기 운영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북팀이 국내를 넘어 세계 컬링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대표팀임을 입증한 대회로 평가된다.

이날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선수단을 직접 만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감독님과 선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우승은 전북 스포츠의 자존심을 세계에 알린 값진 성과이자, 도민 모두에게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준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일 감독이 이끄는 전북 컬링팀은 주장인 만언니 김지수를 중심으로 강보배, 김민서, 심유정, 이보영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훈련과 조직력, 지역사회의 응원 속에서 실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북 컬링팀에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을 다져온 전북 컬링의 대표 주자들이다.

올해 국내외의 주요 대회에서 1회 우승, 2회 준우승을 기록하며 국제무대

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컬링을 이끌 차세대 대표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소년체전 대비 종목별 합동훈련 현장 방문

전북교육청, 레슬링·사격·태권도 훈련 현장 찾아 선수 격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6일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합동훈련 중인 레슬링, 사격, 태권도 훈련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레슬링, 사격, 태권도 등 3개 종목, 총 76명의 전북 대표 선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육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펜싱, 태권도 등 참가 선수단에 훈련 및 용품·장비비, 대회출전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전북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로 구성된 지원단은 종목단체 협회와 연계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방안과 안전 대책, 대회 참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종목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수들이 안정적인 훈련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양원 문체위건강과장은 “전북 대표 선수들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은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4~27일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